

투데이 칼럼

북한에 대한 한미일 대응

한반도의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도발 강도를 점점 높여 가고 있다.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더해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래 보기 드물었던 방사포 사격까지 하는 등으로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새벽에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NLL을 침범하면서 남북이 경고 사격을 주고받았다. 북한은 우리 해군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억지 주장까지 폈다.

이 같은 북한의 연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육해공군, 해병대가 참가한 호국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우리군은 대규모 합동 상륙훈련을 4년 만에 공개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한자리에 모여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접대 없는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새벽 북한 상선 무포호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최대 33km를 남하했다.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 방송에도 무포호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고, 우리 함정이 기관총 20발을 쏘고 KF-16 전투기까지 출동하자 북상했다.

무포호가 북으로 돌아가고 50여 분 뒤, 북한은 서해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했고, 남측 함정이 자신의 해상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

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NLL은 6·25 전쟁 직후 유엔사가 설정한 경계선이다. 남북은 1991년 기본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인정했지만, 이후 북한은 NLL 대신 이보다 최대 6km까지 내려와 있는 해상 분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NLL 침범부터 포사격, 군 총참모부 발표까지 잇따라 나온 건 북한의 미리 준비된 각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의 대비 태세를 떠보며 NLL과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또 북한은 우리의 호국훈련 마지막 날인 2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도발도 재개했다.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이동식 건물 외벽이 해체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한미일 외교차관들도 북한의 핵실험 시 전례 없는 강경한 대응을 경고했다.

동해에선 장병 6천여 명과 갑순상륙함인 독도함,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등을 투입한 해병대 합동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또 10월 31일부터는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기지로 전진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의 참가 가능성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대관식이라 불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10월 22일 폐막했다. 시진핑 주석은 '독부' 마오쩌둥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15년 이상을 통치하는, 사실상 종신권력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시

대는 미중 패권경쟁의 파고가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한중 관계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대립 구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체제 개편 과정에서 반도체라든가 여러 첨단기술 분야를 두고서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경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

미중 대립구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이 과거 6차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또는 미국과의 협력 하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일방적으로 찬성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미국은 타이완을 지원하고,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 한국과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개입 가능성도 있고 또 한국이 후방기지로서 역할을 부당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5년 후인 2027년 21차 당 대회가 있다. 만약 시진핑 주석이 4연임에 도전한다면 타이완 통일은 커다란 장기집권의 정치적 명분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공익형 노인일자리 문제

해마다 노인 공익형 일자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와 노인회는 해마다 공익형 일자리 마련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신규 노인 일자리 아이템 개발 공모전을 진행했다.

특히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내년도에 실제 진행 예정인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수상 아이디어 대부분은 공익형 일자리의 단점을 보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준하는 역할을 하면서 실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24일 발표된 공모전 결과에 따르면 공익형 '유기동물 보호센터 봉사사업'을 제출한 전북 군산시니어클럽이 대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꼭!꼭! 노-장전사 (제천시지회, 공익형)에게 돌아갔다.

이중 단연 눈길어 가는 것은 공익형 사업으로 대상을 차지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봉사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족한 인력 공백을 노인 일자리로 메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산의 유명 유기동물 보호소가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에 착안해 기획됐다. 군산시 대야면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는 최대 800마리까지 동물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청소와 식사 등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 아이디어는 전국의 수많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도 적용할 수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꼭!꼭! 노-장전사'는 지자체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해당 노인회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손을 잡았다.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기획 개발해 나가기 바란다.

탄소산업 전주형 일자리

탄소산업 중심의 전주형 일자리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와 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참여기업들의 잇따른 약재로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하면 울 초 첫발을 뻗인 익산형 일자리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과연 전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전주형 일자리는 익산형 일자리와 함께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맺었다. 탄소산업을 기반으로 효성첨단소재를 비롯한 10여 개 업체가 협약 또는 협력기업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2024년까지 1천6백여 원을 투자하고 2백30여 명을 고용하는 게 골자이다.

특히 올해 안에 정부 사업 신청을 목표로 노사민정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생형 전주 일자리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소재, 중간재, 완제품 생산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평가요소 가운데 '일자리 창출' 부문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타당성 평가 통과 점수도 지금보다 울려 선정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제는 탄소섬유 산업 생태계 조성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 제시 등 전주형 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게 관건이다.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지속 시켜서 사업이 정착되고 탄소와 관련된 산업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라이판 일자리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이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에 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이 전주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안마서 사면, 일본 돌아온 구보타 도루



미안마 군부로부터 석방된 일본 다크멘터리 제작자 구보타 도루가 지난 18일 도쿄 히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미안마 군부는 17일 국경일을 맞아 재소자 5774명에 대한 사면을 발표하고 석방한 외국인들을 추방했다. 여기엔 호주 경제학자 손 터벨, 비키 보먼 전 주미인미 영국 대사, 일본인 구보타 도루, 미국인 차우 후타이 우 등 외국인 4명도 포함됐다.

'학생 봉기' 49주년, 행진하는 그리스 시위대



지난 17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1973 학생 봉기' 49주년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열려 약 5천 명의 경찰이 주요 도로에 배치됐고 차량 통행이 금지됐으며 지하철역 3곳이 폐쇄됐다. 1973년 11월 17일 친미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려 당시 정권의 무력 진압으로 24명이 숨졌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